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제37호 [루계 제2292호]

주제 103
(2014). 9

13
토요일

음력 8. 20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 최 레오니드(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평양이 정말 마음에 든다. 평양에는 옹장하면서도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고 또 멋진 집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산다고 하니 얼마나 믿기 어려운 현실인가. 이번 조국방문을 한생 잊을수 없을것 같다. 평양은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멋있는 도시이다.』

◇ 곽 와슬리(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파슈첸트에는 평양처럼 높은 건물이 없다. 평양에는 멋있는 건물들이 너무도 많다.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 더 표현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 최명철(로씨아대권도련
맹 고문)

『문물나들이 장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 있는 행복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꿈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비평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이번 방문기회에 조선을 똑바로 알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 소감

◇ 김칠성(로씨야고려인통
일련협회 위원장)

『송도원 국제소년단 아영소는 너무도 멋있고 황홀하여 눈이 막 부실 정도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처럼 회한 앙영소를 건설하는 나라는 오직 조국밖에 없다. 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관에 정말 머리가 속어진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더라면 공화국은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것이다.』

◇ 김 에르네스뜨(민족문화
자치회 모스크바지부장)

『조국방문의 날이 흐를수록 정말 잘 왔다는것을 더욱 느끼게 된다. 로씨야에서 살면서 조국이 이처럼 아름다운줄 몰랐다. 우리가 머물렀던 마전, 삼일포, 금강산, 해금강 할것없이 산천경개가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넘어서 좋았다.』

◇ 박 월렌찐(로씨야 연해
변강고려인통일연합회 위
원장)

『세계 여러 나라의 명승
지들을 다녀보았지만 금강산
이 최고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산천경개는 없다.』

◇ 박 뮤리(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는 공화국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런 황홀한 소년
단아영소가 이미전에 세워져
있었다는것이 참으로 놀랍고
부럽다. 미래를 위해 혼신하
는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이
앙영소만 보아도 조선의 미
래가 휘황찬란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다시 아이로 될
수 있는것이 유감이다. 이처
럼 훌륭한 앙영소를 떠나기
가 아쉽다.』

◇ 김 에르네스뜨(민족문화
자치회 모스크바지부장)

『조국방문의 날이 흐를수록
정말 잘 왔다는것을 더욱
느끼게 된다. 로씨야에서 살
면서 조국이 이처럼 아름다운
줄 몰랐다. 우리가 머물렀던
마전, 삼일포, 금강산, 해
금강 할것없이 산천경개가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넘어서 좋았다.』

◇ 허하이 일라(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나의 아버지가 그토록
와보고싶어 하던 조국에 오고
보니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간
절해진다. 아버지는 8.15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은 조
선이 해방된 날이라고 말해
주면서 후세들이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
였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
음으로 조국에 왔는데 모두
를 데리고와서 이처럼 훌륭한
조국을 보여주고 싶다.』

◇ 허하이 안드레이(로씨야
건설회사 사장)

『이번에 조국에 와서 백
두산에 올라가본것은 인생에
서 큰 사변이다. 조선사람이
라면 누구나 백두산에 와서
조국의 냄을 마음에 간직해
야 하며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로
씨야의 우즈베키스카와 올라지
보스도크를 비롯한 일부 지
역들에서는 아직도 조선사람
들을 송배하고 있다. 왜냐하
면 조선사람들이 순박하고
근면하기때문이다. 나는 세
계 여러 나라들에도 갖댔는
한이다.』

데 조선에 온 것처럼 마음이
즐겁지 못했다. 말로는 다 표
현 할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즐겁고 마치 고향에 온 것처
럼 기쁘다.』

◇ 박 뮤리(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조국에 오기전까지 조선
은 달린 나라. 모든것을 숨
기는 나라라고 잘못된 표상
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우
리를 어떻게 맞이하겠는지
은근히 걱정도 많이 하였다.
실지 와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전혀 숨김이 없는 나라,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들과
는것을 체험하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
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긴다. 조
국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
겠다.』

◇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허하이 일라(우즈베키스
민족인협회 부회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대결의 ≪유산≫을 벼려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일연합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
시었기에 우리 조국은 미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
하게 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된것을 궁지 놓
게 생각한다. 북파 남, 해외
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하
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안향진(로씨야고려인통

후대교육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이며 민족의 흥망성쇠,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다른 일에서는 전 세대가 다하지 못한 것을 후대들이 보충할 수 있지만 후대교육사업을 소홀히 하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장래에 돌아갈 수 없는 염증한 후과를 미치게 되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 써도 보상할 수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아이들을 보라고 하였으며 새 세대들의 맑은 눈동자, 착하고 기백님 친 모습에서 그 전도를 본다고 하였던 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레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며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억만금의 금은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들이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꽂고 꽂을 수 있도록 온갖 고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 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그처럼 많은 일이 제기되었지만 북조선 힘지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도록 하시었으며 이 땅에 진정한 인민의 대학부터 세우도록 하시였다. 충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도록 하시고 불타는 고지에서 대학생들을 소화하여 공부하도록 하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신 그의 교육증시, 인재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 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나라의 이트는 그마다에 학교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들을 세워주었으며 학생들의 등교길을 넘려하여 통학버스, 통학배가 다니는 이 세상 그 어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평양 건축 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2(2013)년 11월

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교육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새 세대들을 레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와 후대들을 위한

개선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었으며 두메산 광, 외진 동대성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

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과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해나가도록 이끄신 영도의 자욱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락원군 서중

금을 들여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자들과 새 세대들에게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도 참석하시여 조선단원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고 전반적 12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세 상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레제』와 같은 불멸의 대강을 밝히시여 만년대계의 교육사업을 순간의 로선상

민족교육이 걸어온 역사의 갈피에

신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엄혹했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같이 늘추며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는 교육선행, 교육증시의 현명한 령도로 무료교육, 의무교육이 중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고급중학교를 비롯한 대학들과 학교들에 력력히 새겨져 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홀

름히 건설된 김원균명 청

금을 들여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자들과 새 세대들에게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도 참석하시여 조선단원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고 전반적 12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견지

명의 교육증시사상과 그 실

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의 고

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의 불길

속에서 주체교육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고 해방후 인

민적인 교육제도가 세워지

게 되었으며 전후복구건설

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나날

에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

착오나 자그마한 탈선도 없

이 곧바른 강화발전의 한길

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업

적은 민족교육사에 길이 빛

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높

으신 뜻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후대교

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

과 고려를 기울이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

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교

육과학연구기관들을 일떠세

우도록 하시었으며 두메산

광, 외진 동대성에 이르기까

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육환

경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재

와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우

리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냉어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공화국을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전변시키시

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들로 훌륭히 기우

시여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오신 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조국의 부강

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

여 이룩하신 거대한 공헌이

며 주체교육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품

들이 가꾸어오신 주체적인

민족교육의 확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밀도 아끼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보람

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우

리기 때문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우</p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6년이 흘러갔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겨우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를 감회깊이 돌아보고 있는 우리 겨레는 지금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루 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이고 변함없는 입장이다.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는 조선반도에서 침략적인 외세를 물어내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실록으로 수놓아져 있다.

공화국의 창건자 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렇도 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국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협력사적인 4월남북련선회의가 소집되고 여기에서 일치한 합의가 이루어져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다.

창성고예 철학진 전연의 새 모습

평안북도 창성군은 앞을 보아도 명사로 불리우던 그 산들이 오늘은 뒤를 보아도 어디서나 보이는 산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 뿐이다. 지난날 가난과 설움의 대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었

다. 얼마전 우리는 공화국의 인민을 전하기 위해 취지길에 올랐다. 적시책 아래 살기 좋은 고장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성땅의 새 모습

글: 본사기자 박철남
사진: 김남철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창성의 력사는 오래다. 창성이란 지명유래가 성을 쌓으면서 번창해졌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고려시기에는 장정현, 창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정식 창성으로 불리워지게 된 창성은 오랜 역사에서 우리 나라 산간벽지의 대명사로, 못 먹고 못 입고 못사는 고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오죽했으면 온 집안이 집밖을 나설 때면 아버지의 훌쩍 삶을 둘려가며 입어야 했고 살길을 찾아 이곳에 왔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돌리

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였겠는가.

그랬던 창성의 산들을 인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되게 해주시고 창성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 시켜주신분은 위대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과

수 274일에 현지지도로 정이 4만 5 000여리에 달한다고 하니 정녕 창성군의 오늘같은 전변은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길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가. 언제인가는 자신께서 둘발길을 많이 걸어야 창성사람

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참으로 창성땅 곳곳에 것들이 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인민을 위해 험한 길을 걸고 걸으시며 만복의 터전을 닦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지난해 6월 창성

어제날의 궁벽했던 산골군이...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창성사람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나 모른다.

창성군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일 수가 398일에 걸친 현지지도로 정만도 5만 5 000여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일

들의 생활이 펴인다고, 그런 데 구두를 신고 둘발길을 걸자니 발이 부르트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 밤새 초신을 삼으신 못 잊을 이야기도 있고 창성사람들이 차기 고장의 원료로 만들어낸 종이를 거듭 만져보고 쓸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펜을 드시고 『내나라』라고 세번이나 글을 써보신 가운데

땅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창성같은 군은 없다고, 대원수님들의 령도사적이 많이 깃든 흥기기때문에 오늘 창성군은 전국의 왕장에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떠받들려 창성이 자기의 면모를 또 새번이나 글을 써보신 가운데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억새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세거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홀하게 비겨 이르는 말이다.

본래는 벽창우였는데 소리가 와전되어 오늘은 『벽창호』라고 한다.

창성군 읍에 위치하고 있는 창성군식료공장은 각종 산파일들을 가공하여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전문산파일가공기지이다.

이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탄산단물들과 단복, 드롭프스, 파자, 파일술,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어나오고 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낀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는 몇명 안되는 종업원들이 망이며 가마, 독같은을을 차려놓고 겨우 지침이나 옛과 같은 제품들을 손으로 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공장이 오늘은 현대화된 생산공장을 갖춘 공장으로, 갖가지 식료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되었다.

생산공장들이 현대화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산열매전처리공정, 드롭프스생산공정, 파자생산공정, 음료생산공정, 콤플리터조종실, 초림제작출공정... 어느것이나 다 그쯤하다.

창성군의 대표적인 력사문화유적으로는 천리창성을 들 수 있다.

이 성은 고려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압록강하구로부터

평안북도의 북쪽과 자강도의 회천지방, 평안남도의 북단을 가로 질러 경상남도의 바다가에 이르는 연연 천여리에 달하는 장성이다.

1033년부터 1044년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서쪽으로부터 차례로 쌓았다. 창성은

련이어 늘어선 성벽과 함께 여러개의 독립적인 산성들을 연결하였으며 경성을 쌓기도 하였다. 성벽의 대부분은 돌로 쌓았고 곳에 따

만부하의 동음을울리는 식료공장

지난 시기 가을철이면 많은 산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옛말로 되어버렸다.

현대적인 산열매전처리공정이 그만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종전에 비해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4배에 달하는 산열매

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파자생산공정

에서는 강냉이가 초미분쇄기

를 거쳐 독특한 맛을 내는 파

자로 변하여 홀려나온다. 머루, 다래, 젤팡이와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와 단복을 생산하는 공정은 불만 하였다. 이 공정이 새로 꾸려짐으로써 제

제품생산에 쓰이던 사탕가루대신 물엿을 50%나 당원료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병세척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선을 갖춘 음료생산 현장에서는 각종 탄산단물을 이 생산되어나오고 있다.

하기이에 돌생일이나 결혼상을 차릴 때면 의례히 중앙공장제품들을 찾곤 하던 창성사람들이 지금은 저저마다 이 공장제품들만 요구하고 또 평양에 사는 친척들의 집에도 이 공장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자랑하곤 한다니 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기 위한 된바람이 일고 있다.

만부하의 동음 세차게 울리는 창성군식료공장!

이 공장의 모습에 더욱

더 살기 좋은 략원으로 전

변될 창성땅의 레일이 비껴

있었다.

단상

내고향의 『옥류관』

이 뛰여나왔다.
『이거 한그릇 더 주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한껏 담은 접대원처녀가 평양에서 온 손님(필자) 앞에 경반국수를 갖는 듯이 예쁘게 차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창성사람들은 이 식당을 내고향의 『옥류관』이라고 정답게 부른답니다.』

내고향의 『옥류관』!

새겨볼수록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

이 한마디말속에 이 나라 산간벽지에까지 펼려온 미치고 있는 인민사랑의 정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기가

사는 이 땅을 기어이 제손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략원으로 가꾸어 가려는 불타는 맹세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확신시켜주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창성군의 대표적인 력사문화유적으로는 천리창성을 들 수 있다.

이 성은 고려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압록강하구로부터

평안북도의 북단을 가로 질러 경상남도의 바다가에 이르는 연연 천여리에 달하는 장성이다.

1033년부터 1044년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서쪽으로부터 차례로 쌓았다. 창성은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회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넝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그 성벽이 잘 남아있다.

이곳 천리장성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한 선조들의 투쟁과 자랑스러운 민족의 력사를 되새겨보고 있다.



창성각에서

관상적가치가 큰 1 400여종에 2만여점의 화초들

공화국창건 66돐을 맞으며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는 화초생산 단위일군들과 근로자들, 화초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전국화초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들, 평양시와 각 도의 많은 단위들에서 마련한 1 400여종에 2만여점의 화초와 꽃관목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는 화초와 꽃관목들로 다채롭게 장식된 분체, 분경 등 특색있는 전시 품들과 여러 가지 꽃씨, 꽃제 품제작기술을 담은 CD들이 출품되었다.

분체는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을 적당한 화분에 심어 그의 생육을 제한하여 조형에 술적으로 가공하여 오래 묵은 식물과 같이 느끼도록 만든 관상식물이다. 평양 철도국에서 내놓은 불가시나 무분체 조선지도 『하나』는 조형에 술적기교와 식물재배 기술을 잘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2년간 자란 불가시나무분체는 이곳 원예사업소의 최명순원예사가 통일된 조국땅을 마음껏

전 국 화 초 전 시 회 에 서

누비고 싶은 철도부분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창작한 것으로서 높이 2.56m, 너비 1.36m나 되는 대형분체이다.

지난해 전국화초전시회에 출품하여 특등상을 받은 이불가시나무분체와 함께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마을들마다에 펼쳐진 흥한 전경을 화폭에 담은 『신경마을분경』을 만들어내놓아 이번 전시회에서 기술상을 받았다. (분경은 나무나 돌을 소재로 예술적 처리와 섬세한 재배를 통하여 화분속에 대자연의 전형적인 면모를 짐작적으로 재현한 예술작품, 자연풍경에 대한 런체적 예술작품이다.)

전국화초전시회장에서 우리는 화초애호가들도 만나보았다.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동에 사는 박상복(43살)은 『어릴 때부터 화초를 좋아하였다. 학교로 오가다가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집터밭에 옮겨심고 관찰하곤 하였다. 지금은 두자식을 거느린

가정주부이지만 가정에 많은 화분들을 갖추어놓고 꽃을 가꾼다. 하지만 새 품종의 화초들에 대한 파악이 없거나니 애를 먹을 때도 없지 않다. 이번에 전국화초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 새 품종의 꽃들도 많고 화초재배기술도 배

울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 1동에 산다는 최성희녀성(45살)은 『꽃매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화초 가꾸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 잠이 오지 않

는다. 그래서 참고서적들도 많이 보곤하는데 이런 전시회가 열릴 때면 빠짐없이 참가하여 하나님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곳을 찾은 각 기관, 기업소의 화초생산자들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몸가짐과 행동거지를 바로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자각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격몽요결』과 같은 문헌들에서는 『구용』(9가지 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하여 몸가짐, 행동거지와 관련한 규칙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조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이러한 몸가짐례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고 앉는 자세와 동작이 단정한것을 들 수 있다.

례절에서 서고 앉는 자세란 웃사람앞에서나 대사를 치를 때의 경우를 냅두는데 두었다. 서는 자세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 는다.),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

직하고 고요하게 해야 하며 수다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머리를 끌게 바르게 가져야 이것 한 자세를 지킨다.), 『기용숙』(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히 해서 기상을 양숙하게 가진다.), 『립용덕』(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더성 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색용장』(얼굴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가진다.) 등이다.

그것을 보면 『죽옹중』(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웃사람의 앞을 지날 때와 웃사람의 지시로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한다.), 『수용공』(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아 진다.), 『목용단』(눈은 대단하고 곱게 끝난다. 치마를 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데), 『구용지』(입은

작용히 다물어야 한다.), 『성용정』(말소리는 나